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속보: 항만 파업 사태 - 파업 사태로 인해 미 소매 체인들은 컨테이너 도착지를 서부항만으로 옮기고 있으며 미 국내 생산 업체들은 해외 제품 수입 소매 체인들에 "제품 생산을 늘릴 수 있다"고 타진하고 있다. 심지어 소매업체중에는 재고 부족을 우려해 연말 할인 행사를 줄이고 있다.

[미국 경제]

- Reuters: 8월 제조 주문 예상 외로 하락
- Bloomberg: 미 서비스 활동, 올해 초 이래 가장 빠르게 증가
- CNNBusiness: 내일 발표 일자리 보고서, 노동시장 둔화 불구 안정세 보여 줄 듯
- Bloomberg: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 하락 진정세 유지...낮은 해고 상황과 일치

[미국 금융]

- Bloomberg: 골드만삭스 "S&P 500의 목표 6,000은 너무 낮다"

[항만 파업]

- FinanceYahoo: 미트릭킹그룹 대표, "항만 파업에 행정부가 나서라"
- POLITICO: 바이든, 항만 파업 중재에 나서지 않을 계획
- CNNBusiness: 항만 파업에 대해 알아야 할 5가지 사항
- NYT: 항만 파업으로 트럭킹 운영 타격

[주택]

- Bloomberg: 모기지율 약 6%에 재융자 열풍 분다

[오일]

- Bloomberg: 트레이더들, 중동 긴장 고조로 유가 100달러에 배팅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아마존, 연말 시즌 대비해 25만 명 채용
- Bloomberg: 페이팔, Stablecoin을 이용한 첫 거래 완료
- CNBC: 테슬라, 로봇택시 약속한 지 10년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Reuters: US factory orders unexpectedly fall in August 8월 제조 주문 예상 외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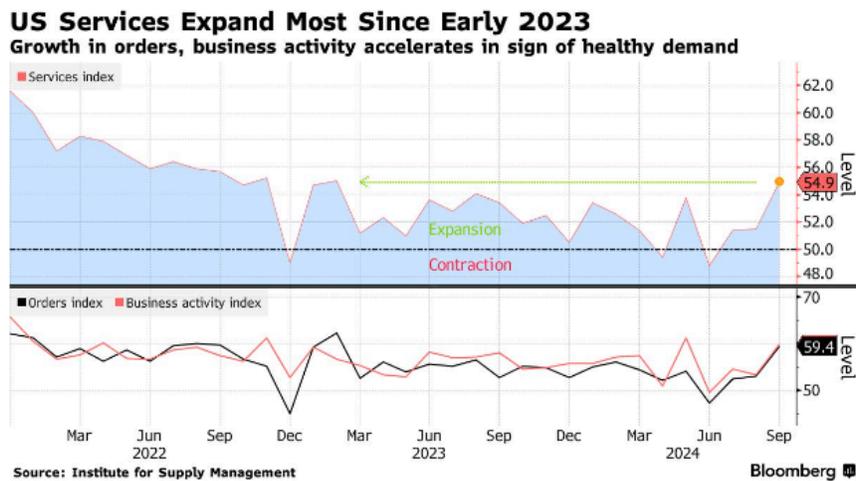
- 8월에 미국이 제조한 제품 신규 주문이 예상 외로 하락했다. 반면 비즈니스 장비 지출은 3분기에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 제조 주문은 7월에 하향 조정치로 4.9% 상승했으나 8월에는 0.2% 하락했다고 연방 상무부 노동국은 목요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제조 주문이 7월에 거의 5% 상승한 이후 변동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었다.
- 제조 주문은 작년 8월과 비교해 0.3% 상승했다.
- 또한 장비에 대한 비즈니스 지출을 측정하는 이른바 비국방 자본재 주문은 8월에 0.3%로 상향 조정됐다. 핵심 자본재 납품은 0.1%로 하향 조정됐다. 비국방재 자본재 주문은 1.3% 하락했다.

Reuters 기사

Bloomberg: US Services Activity Expands at Fastest Pace Since Early 2023

미 서비스 활동, 올해 초 이래 가장 빠르게 증가

- 미국의 서비스 활동이 올해 2월 이래 가장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신규 주문 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 오늘 목요일 9월 공급관리자협회(ISM)의 서비스 지수는 3.4 포인트 늘어난 54.9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의 예상을 넘은 수치다. 지수가 50을 넘은 경우 확장을 의미한다.
- 신규 주문 지수는 6.4 포인트 크게 증가해 올 초 이래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다. ISM 생산지수와 함께 비즈니스 활동 지수가 4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이면서 경제가 3분기 하반기에 안정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Bloomberg 기사

CNNBusiness: Friday's jobs report could be the last normal one for a while

내일 일자리 보고서 발표, 노동시장 둔화 불구 안정세 보여줄 듯

- 내일 금요일 발표될 연방정부의 일자리 보고서는 노동 시장이 둔화되지만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추가적인 안정세를 보일 경우 전반적인 경제에 좋은 신호가 되며, 노동 시장 둔화가 전반적인 경제 침체로 이어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연준 입장에서 좋은 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내일 발표될 9월 일자리 보고서는 비교적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11월 대선 바로 직전인 11월 1일에 발표될 10월 일자리 보고서 내용은 3가지 상황 때문에 왜곡될 우려가 있다.
- 허리케인 Helene에 따른 여파, 동부와 걸프만 항만 파업과 계속되는 보잉 기술자들의 파업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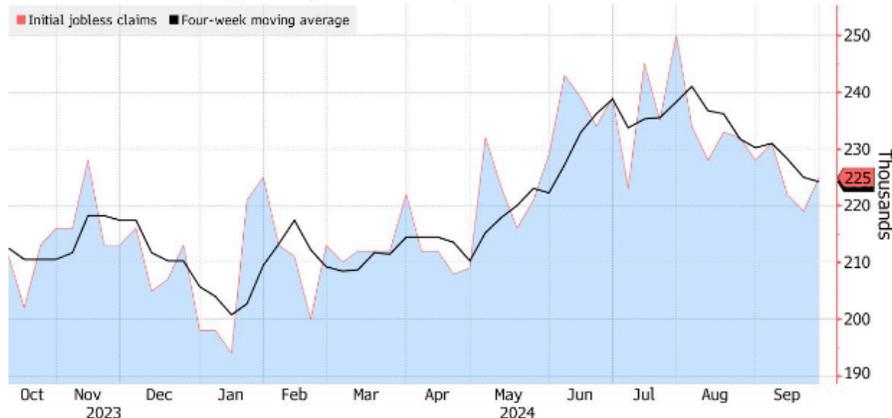
CNNBusiness 기사

Bloomberg: US Jobless Claims Remain Subdued, Consistent With Low Layoffs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 하락 진정세 유지... 낮은 해고 상황과 일치

- 미 신규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약간 상승했지만 해고 건수가 제한적인 상황과 일치한다.
- 9월 28일 끝나는 주간에 해당 청구 건수는 6천건 늘어난 22만5천건을 기록했다. 블룸버그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22만1천건이었다.
- 추이를 측정하는 4주 연속 평균치는 22만4천2백50건으로 지난 6월 1일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 계속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숫자는 183만건으로 별다른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US Jobless Claims Rise Slightly as Layoffs Remain Low
The four-week moving average fell to 224,250



Source: Labor Department

Bloomberg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Goldman’s Rubner Worries His Year-End 6,000 S&P Target Is 'Too Low'

골드만삭스 “S&P 500의 목표 6,000은 너무 낮다”

- 지난 수 주간 흔들렸던 미 증시는 연말에 랠리를 보이면서 S&P 500을 6,000선을 넘게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골드만삭스의 글로벌 마켓 매니징 디렉터이자 기술 분석 전문가 Scott Rubner는 예측했다.
- 그는 “미 증시는 10월 28일부터 랠리를 보이기 때문에 목표 6,000선은 너무 낮다”고 말했다.
- 그는 그러나 향후 수 주 동안 약세를 유지할 변동성 확대를 지적했다. 이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Goldman Sachs FICC and Equities Source: Goldman Sachs FICC and Equities

Bloomberg 기사

[항만 파업]

FinanceYahoo: Trucking group leader calls for political intervention amid ongoing port strike

미트릭그룹 대표, “항만 파업에 행정부가 나서라”

- 동부 및 걸프만 항만 파업이 이틀째 접어들면서 전미트릭협회의 대표인 Chris Spear는 연방 행정부의 중재를 요구하고 있다.
- 그는 파업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이미 트럭 산업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거의 50만개의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62개의 컨테이너 선박이 동부 및 걸프만 항만 목적지를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공급 및 적재물 감소가 트럭킹 운영에 즉각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 그는 이것이 리더십 부재를 말한다고 대통령과 행정부가 나설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항만 파업 관련 양측이 6월 이래 만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FinanceYahoo 기사

POLITICO: Biden won't step in to stop dockworker strike 바이든, 항만 파업 중재에 나서지 않을 계획

- 백악관은 항만 노무자들이 일자리로 복귀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번 주 화요일 밝히며 현재로서는 미국의 주요 필수품들에 대한 여파가 최소한의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상황을 지켜보면서 파업이 장기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구체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파업을 종식할 수 있는 관련 법인 1947 Taft-Hartley로부터의 권한을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현재 미상공회의소는 바이든의 관여를 요구하고 있는데, 바이든 측은 대선을 몇 주 안 남기고 노무자들의 심기를 건들고 싶지 않은 입장으로 알려졌다.
- 연방 하원 교통위원회의 공화당 의장도 대통령이 관련 법을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경제를 해쳐 미국인들의 재정 여력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 백악관의 입장은 현재 시점에서 연료, 식품, 의약품, 유아 포물러 등 소비자에 대한 여파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반응이다. 곡물, 원유, 가솔린, 천연가스 등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POLITICO 기사

CNNBusiness: Five things to know as the massive port strike enters its third day 항만 파업에 대해 알아야 할 5가지 사항

-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 이유는 자동화와 임금 때문이다. 노조 측은 자동화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다음 6년 동안

- 시간당 5달러, 총 77%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 측은 월요일 시간당 3달러, 총 50% 인상을 제안했었다.
- 파업으로 인한 경제 손실은 파업이 얼마나 길어지냐에 달렸다. Anderson Economic Group에 따르면 1주일간 파업으로 미국 경제에 약 21억 달러 손실이 발생한다. 화장지처럼 미국 국내 공장에서 대부분 물건이 생산되는 제품은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바나나처럼 부패하기 쉬운 수입 품목은 공급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 바나나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일이지만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체리, 코코아, 설탕, 수입 와인, 맥주 등도 비슷한 상황이다.
 - 이번 파업이 선거에 미칠 영향도 관심이 많다. 바이든 대통령은 파업을 멈추는 Taft-Hartley 법을 발동하지 않고 노동자의 권리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후보 카밀라 해리스는 노동자들이 해운 회사들의 기록적인 수익을 공정하게 분배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해리스는 “트럼프가 “노조를 파괴하는 사람을 NLRB에 임명했다. 최근에는 파업 노동자를 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화당 후보 트럼프는 이번 파업은 카밀라의 두 차례 포퓰리즘으로 인한 인플레이 때문에 발생했다고 말했다. 경기 진작 관련 American Rescue Plan과 인플레이 감축 관련 IRA에 대한 언급으로 보인다.

CNNBusiness 기사

NYT: Truckers See Ports Turn Into Ghost Towns, and Worry About Their Future

항만 파업으로 트럭킹 운영 타격

- 동부 항만과 걸프만 파업이 시작되면서 화물 터미널들이 대부분 중단됐다. 화물이 정체되고, 교역이 멈추며, 정상화 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유명 도시처럼 변해버렸다. 뉴욕을 비롯한 주요 항구가 사실상 중단된 건 수백만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수출입 기업들에게도 큰 타격을 준다.
- 특히 트럭 운전자들의 일거리가 줄어들었다. 항만 노동자들은 초과 근무를 고려하면 연봉이 20만 달러에 달하기도 한다. 반면 트럭 운전자들은 훨씬 낮은 임금을 받고, 노조도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해 안정성이 낮다.
- 해운 회사들은 오히려 이번 파업으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공급망 혼란이 가격을 올린다. 팬데믹이나 후티 반군에 의해 수에즈 운하가 막혔을 때를 보면 알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교통부 장관 Pete Buttigieg는 “해운 회사들은 추가 요금을 철회해라. 누구도 혼란을 이용해 이익을 챙겨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 전문가들은 파업이 며칠 내에 해결되면 경제적 혼란은 적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기업들이 이미 몇 달 전부터 파업을 예상하고 제품을 쌓아뒀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업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비축분도 고갈될 가능성이 크다. 화물 컨테이너 예약 플랫폼 Freightos의 연구 책임자 Judah Levine은 “좋은 대안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NYT 기사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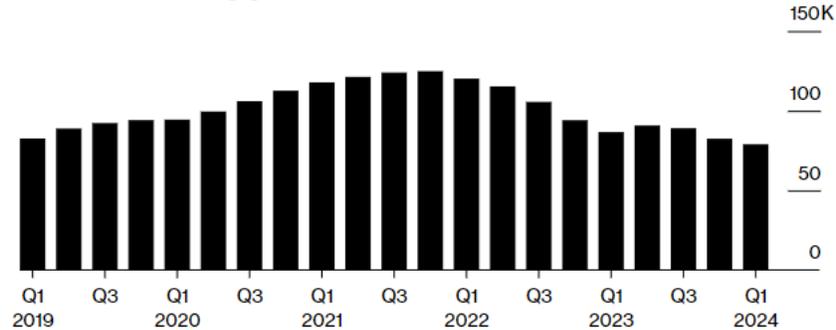
Bloomberg: Mortgage Rates Near 6% Are Enough to Start Up a Refinancing Wave
모기지율 약 6%에 재융자 열풍 분다

- 모기지 은행 협회에 따르면 지난주 모기지 재융자 거래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모기지 재융자 열풍이 불고 있다. 재융자 열풍이 얼마나 커질지는 금리가 얼마나 낮아지냐에 달렸다.
- Redfin에 따르면 미국 주택 소유자의 75%가 5% 미만의 이자율로 모기지에 묶여 있다. 금리가 그만큼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진 않는다. Redfin 경제 연구 책임자 Chen Zhao는 이것은 매우 ‘작은 물결’이라고 말했다.
- Fannie Mae는 금리가 현재 6.14%에서 약 5.7%까지 떨어지면, 단독주택 재융자 규모가 올해 3천750억 달러에서 2025년엔 약 6천500억 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모기지 금리가 2.85%였던 2020년 2조8천억 달러에 비하면 매우 작은 규모다. Fannie Mae 수석 이코노미스트 Mark Palim은 지금 대출을 받을지, 추가 하락을 기다릴지는 예상 주택 거주 기간 등 개인 상황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Mortgage Employees Left Industry During Housing Slowdown

Fewer staffers are left to compete for the now growing refinance business

■ Number of active mortgage loan officers in US



Source: Nationwide Multistate Licensing System

Note: Reflects mortgage sales & fulfillment employees who originated at least one loan in the quarter

Bloomberg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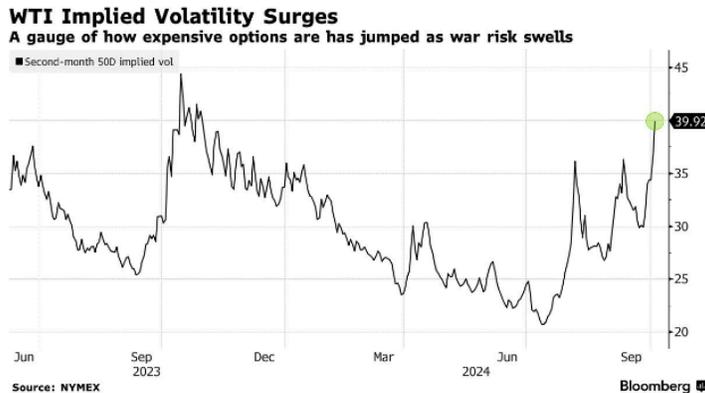
[오일]

Bloomberg: Traders Bet On \$100-a-Barrel Oil as Middle East Risks Escalate

트레이더들, 중동 긴장 고조로 유가 100달러에 배팅

-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상승하면 수익을 지급하는 옵션이 수요일 거래됐다. TP ICAP Group의 에너지 전문가 Scott Shelton은 “100달러 콜옵션은 보험과 같다. 생산 자체에 문제가 생길 확률은 낮지만, 지정학적 문제는 판단하기 어렵다. 기본적인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부진하다.”고 말했다.

-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 공격했고, 이스라엘은 보복을 공언했다. 화요일 브렌트유는 지난해 3월 이후 최대 가격 변동을 기록했다. 강세 콜옵션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와 브렌트유 100달러 콜옵션은 8월 중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 하지만 곧 OPEC+의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향후 몇 달 동안 공급 과잉이 확실하다. 수요 증가세도 불안한 상황이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Bloomberg: Amazon Is Hiring 250,000 for Holiday Season, Unchanged From 2023

아마존, 연말 시즌 대비해 25만 명 채용

- 아마존은 연말 시즌을 대비해 25만 명의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작년에 도 비슷한 수의 직원을 채용했었다. 아마존은 최근 미국 내 80만 명의 운송 및 창고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당 22달러 이상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기존 보다 최소 1.50달러 올린 것이다.
- Challenger, Gray & Christmas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52만 명을 채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보다 약 8% 감소한 수치다. Target은 작년과 비슷하게 10만 명의 계절 채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 온라인 거래 전망은 긍정적이다. Adobe는 미국 소비자들이 11월, 12월에 약 2천408억 달러를 온라인에서 지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보다 8.4% 증가한 수치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PayPal Completes Its First Business Transaction Using Stablecoin

페이팔, Stablecoin을 이용한 첫 거래 완료

- 페이팔이 자사의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을 이용한 첫 비즈니스 거래를 완료했다. 디지털 통화가 비효율적인 상업 거래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보여줬다.
- 기업 간 거래, 특히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는 제3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페이팔의 블록체인, 암호화폐 및 디지털 화폐 그룹 부사장 Jose Fernandez da Ponte는 이번 거래가 결제 속도와 가용성 면에서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 페이팔은 지난달 스테이블코인 및 소비자 암호화폐 제공과 같은 페이팔의 디지털 자산에 기반해 비즈니스 계좌에서 암호화폐를 구매, 보유 및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Fernandez는 “각 산업의 파트너와 협력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비즈니스 결제의 유용성을 보여줄 것이다. 페이팔, SAP, EY는 잘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CNBC: After a decade of Elon Musk promising Tesla robotaxis, here's what we know

테슬라, 로봇택시 약속한 지 10년

- 일론 머스크는 10년 동안 언젠가 테슬라 자동차가 로봇택시처럼 스스로 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왔다. 다음 주, 테슬라는 자율 주행 택시의 디자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 Alphabet의 Waymo는 이미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로봇택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아마존의 Zoox는 2023년 2월 로봇택시 서비스 출시를 위해 차량 테스트를 시작했다. 중국 Pony.ai와 Baidu도 로봇택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 로봇택시 시장은 수익성이 클 수 있다. Raymond James는 2030년까지 로봇택시 예약이 연간 5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CNBC 기사

[보고서]

'유가 100달러 갈수도'...중동분쟁 격화에 전문가들 "실질 위협" 이스라엘, 이란 석유시설 공격 가능성..."세계 석유공급의 최대 4% 위협"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중동 분쟁이 격화되자 국제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로 치솟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중동 확산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원유 공급에 중대한 타격이 있을 것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리서치업체 MST 마퀴의 사울 카보닉 에너지 분야 수석 애널리스트는 1일(현지 시간) CNBC에 "중동 분쟁 확산이 결국 석유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석유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상황이 임박했다"고 말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